

# 너부터

82

2018 상반기

〈나눔터〉 82호를 함께 만든  
기자단 Meka 3기를 소개합니다.



성숙의지표\_세린



쌔마이웨이\_소휘



FLAWX\_헤리



아이러브유\_수빈



치킨은역시\_훈제



모태홍부자\_곰지

---

#### 4 이렇게 활동했습니다

- 4 직장 내 성폭력, 서로 다른 세계를 만나 공동된 문제 이야기하기
- 7 의심에서 지지로, “성폭력 역고소를 해체하다” 연구포럼을 마치며
- 11 #미투시민행동 상황실에서 온 편지

---

#### 16 댄디!상담소

---

#### 18 열림터 다이어리

---

#### 20 생존자의 목소리

- 20 [시] 변두리에서
- 22 행동할 권리 (1/2)
- 24 [시] 숨기는 옷
- 26 #MeToo 엄마에게 (쓰는 편지) (1/2)
- 28 [시] 치유의 꽃

---

#### 34 성문화읽기

- 34 낙태죄 위헌 심판을 앞두고 ‘사회정의’를 외치는 이유
- 37 UN CEDAW 제69차 세션 한국 제8차 본심의 대응단 참가기

---

#### 42 시끌시끌 상담소

- 42 내가 나일 수 있는 곳, Meka
- 45 2018 상근활동가 워크숍 스케치

---

#### 50 아낌없이 주는 나무

- 50 후원회원 명단 및 후원방법 안내

---

#### 52 훈훈한 기부

---

직장 내 성폭력

# 서로 다른 세계를 만나 공통된 문제 이야기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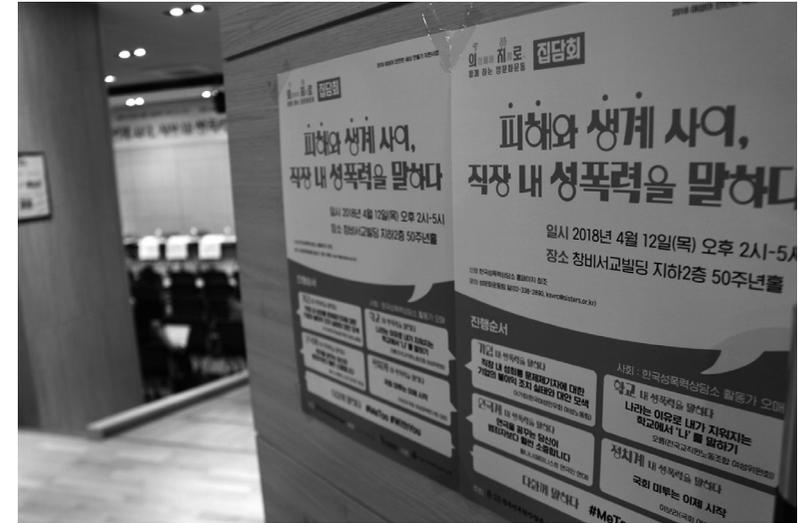
더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고 싶은\_앞

’

4월 12일 창비서교빌딩 50주년홀에서는  
의심에서 지지로, 함께 하는 성문화운동 집담회  
<피해와 생계 사이, 직장 내 성폭력을 말하다>가 진행되었습니다.

올해 상담소에서 진행하는 <의심에서 지지로, 함께 하는 성문화운동(이하 '의지로')> 사업은 성폭력 피해자에게 향한 질문의 방향을 가해자에게 되돌리고 피해자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한 지지망을 형성하기 위한 대중 인식 개선 사업입니다. <의지로> 사업을 알리는 첫 행사로는 먼저 각 현장에서 성폭력과 맞서 싸우고 있는 생존자와 지지자의 생생한 이야기를 듣고 싶었습니다.

올 상반기에는 미투(#MeToo) 운동으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성폭력 사건, 연출가 이윤택 성폭력 사건, 전 충남지사 안희정 성폭력 사건 등이 연이어 폭로되었습니다. 그 밖에도 많은 생존자가 성폭력 말하기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사회 전반에 걸쳐 성폭력에 대한 공론화가 이어졌고, 가해자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한 성폭력을 강조하는 '권력형 성폭력'이라는 용어도 생겨났습니다. 이번 집담회에서는 검찰, 연극계, 영화계, 정치계 등으로 조각조각 나누어 이야기되고 있는 성폭력 사건들을 '직장 내 성폭력'이라는 하나의 키워드로 모아보고자 했습니다. 피해자의 노동환경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에 보편적으로 작동하는 권력 구조를 밝히고, 해당 업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각각의 해결 방안을 찾아가기 위해서였습니다.



● 집담회 <피해와 생계 사이, 직장 내 성폭력을 말하다>

미투 운동 이후로 '왜 이제 와서 말하느냐?' 혹은 '정말 성폭력이었다면 왜 그 일을 계속했느냐?'라는 질문을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성폭력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말할 수 없게 만든 상황과 맥락은 무엇이었는지, 왜 피해자가 성폭력을 피하려고 일을 그만뒀야 하는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피해자의 인생은 성폭력 피해로 한순간에 끝나지 않습니다. 성폭력 피해 이후에도 피해자는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며 일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값야 할 빛이 있을 수도 있고, 이루고 싶은 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피해와 생계 사이'라는 제목을 붙인 것은 성폭력 피해자가 놓여 있는 상황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직장 내 성폭력'이라 하면 기업이나 사무실을 떠올리지만, 이번 집담회에서는 일부러 연극인, 학교 선생님, 국회의원 비서관 등 일반 사업장과는 조금 다른 직장엔 계신 분들을 만나고자 했습니다. 발표자는 해당 업계의 구조와 문화를 가장 잘 알고 있는 현직 종사자를 섭외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공개적으로 내부 비판을 해야 하는 만큼 부담감도 컸을 텐데 흔쾌히 제안을 받아들인 발표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한편으로는 르노삼성자동차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을 직접 지원했던 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팀의 활동가를 섭외하여, 작년 연말에 선고된 대법원 판례의 내용과 의의를 알리고자 했습니다. 직장 내 성폭력은 성폭력 피해만으로 끝나지 않고, 피해자와 조력자에 대한 고용·인사상 불이익조치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뿐 아니라 조력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도 사실상 피해자를 고립시키고 위축시킬 수 있다고 판시하며 ‘사용자책임’을 폭넓게 인정했습니다. 현행법상 남녀고용평등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업장 및 업계에서는 이와 같은 ‘사용자책임’을 어떻게 물을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해야 하겠습니까.

발표자들의 발표가 끝난 후에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플로어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해당 업계에 대해 구체적인 질문을 한 참여자도 있었고, 발표자와 유사한 업종에서 일한다며 고민을 나뉜 참여자도 있었습니다. 동종업계에서 일하는 참여자가 침언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질의응답이 이어지면서 성폭력 해결을 어렵게 만드는 노동 현실에 함께 분노하기도 했지만, 직장 내 성폭력 피해를 산업재해로 인정받는 선례를 남기거나 업계 내부에 페미니스트 연대를 만들고 페미니즘 담론을 주류화하는 등 대안과 해결책을 상상해보며 힘을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는 피/가해자의 관계와 권력 차이뿐 아니라 일에 대한 꿈과 열정, 조력자와 동료에게 미칠 불이익, 업계 내 평판, 업계 외부 사람들의 몰이해, 심지어는 가해자의 생계/작품/재능/미래에 대한 걱정까지 모두 고려해서 피해 사실에 대한 문제제기 여부를 결정합니다. 누구보다 힘들게 고민하고 말하기를 결정했을 피해자에게 의심보다는 지지를 보내는 사회를 함께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

각 발표 내용과 플로어 토론에서 오간 내용은 한국성폭력상담소 홈페이지(www.sisters.or.kr)를 통해 PDF로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구포럼을 마치며

## 의심에서 지지로, “성폭력 역고소를 해체하다”

성폭력 역고소 문제 알림이\_파이

‘

지난 4월 19일, 서교창비빌딩에서 <성폭력 역고소를 해체하다>라는 이름으로 열린 포럼을 진행하였습니다.

지난해, 부설연구소 올림은 한국여성성의전화와 함께 「성폭력 역고소 피해자 지원을 위한 안내서」를 발간하였습니다. 상담소에서는 최근 몇 년, 유명연예인들의 연이은 무고 등 역고소 사건들을 지원하면서 사안의 심각성을 절감하였고, 성폭력 피해뿐 아니라 역고소로 어려움을 겪을 피해자들에게 힘이 되기를 바라며 안내서를 발간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함께 했던 연구진들은 그 자료들을 토대로 역고소의 실태를 파헤치는 연구를 추가로 진행하여 이번 열린 포럼을 열었습니다. 당시 100여 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여해주셨고, 예정된 시간이 지났음에도 열린 토론과 함께 서로 힘을 주는 말들이 오고 갔습니다. 역고소 피해가 그만큼 많다는 사실과 우리들의 연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체감할 수 있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가 무고로 기소되는 사안의 핵심에는 ‘성폭력 통념’과 성폭력에 대한 법적 판단 기준이 있습니다. 형법 제297조에서 강간의 판단 기준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로 되어 있는 만큼, 대부분 아는 사이에서 발생하며, 폭행, 협박이 없는 많은 성폭력 사건에서 법적 공백이 생깁니다. 그 공백 사이에는 한국사회에 강고한 ‘꽃땀 신화’, ‘강간 신화’와 같은 것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텔에 갔다거나, 금전적 보상을 요구했다거나, ‘항거를



● 열린포럼 <성폭력 역고소를 해체하다>

곤란하게 할 만큼의 폭행, 협박이 증명되지 않는 경우에는 성폭력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가해자가 무혐의로 풀려나면서 검사로부터 무고 인지를 받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만약 성폭력 가해자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면, 그것은 증거가 충분하지는 못하거나, 추가 증거가 더 필요하다는 의미임에도 한국에서는 무혐의가 곧 무고로 인식되면서 가해자에 의한 무고 고소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용기를 내어 피해 사실을 공개한 피해자들은 형법 제307조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고소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더 이상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성폭력을 고소하거나 공개한 피해자들이 오히려 무고나 명예훼손 등으로 역고소되면서 이중, 삼중의 피해에 노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5월 28일, 대검찰청에서는 성폭력 수사시 재판이 끝날 때까지 피해자를 무고로 기소하지 못하도록 수사매뉴얼을 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당일, 이러한 수사매뉴얼이 '불법'이라며, '대검찰청의 불법적인 성폭력 수사매뉴얼 중단을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국민청원 운동이 시작되었고 여기에 서명한 국민들이 20만 명을 넘었습니다. 이들이 두려워하는 것, 걱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전 생애동안 셀 수 없을 만큼의 불법적 피해를 몸으로, 마음으로 경험하고 있는 여성/피해자들의 피해보다 후시나 있을지 모를 '진짜 꽃뱀'의 존재는 왜 그리 두려운 것일지 분석이 필요한 일입니다.

본 연구포럼을 진행하면서 성폭력/성폭력 역고소 피해자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만날 때마다, 그/녀들에게 얼마나 큰 힘과 지해가 있는지, 피해자들은 약하고 고통스럽기만 한 존재가 아님을 매번 새롭게 느낍니다. 피해자들은 매 공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적극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검사와 재판부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현재 법조항에 없는 폭력들은 연구자료를 뒤져 자료를 제출하였고, 때로는 본인의 변호사와 논쟁하고 설득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의 언어를 재구성하고 객관화해가면서 임파워되고 그리고 그 힘은 또 다른 피해자들과의 연대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당신한테 돌을 던지는 사람이 열 이라면  
 당신한테 연대하고 싶어하는 사람 100이니까  
 그 열에 대부분 갇혀있거든요. 저도 그랬고 초반에 그랬고.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100이 있으니깐,  
 그런 여성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연대를 해나가고  
 우리 잘 싸울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성폭력 역고소 피해자와의  
 인터뷰 중에서

위의 피해자의 말처럼, 많은 피해자들이 “피해자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보다, 연대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대응하는 것도, 침묵하는 것도, 포기하거나 체념하는 것도, 모두 ‘살아남은’ 피해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선택지이며, 꼭 강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강박은 없어도 된다는 사실도 함께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성폭력도, 성폭력 역고소도 그것을 구조적으로 지탱하고 지지하는 남성중심 문화, 법, 제도에 의해 유지됩니다. 미투운동이 피해자들의 경험과 목소리를 통해 울려 퍼질 수 있도록, 한국사회의 구성원들이 성찰적 감수성을 가지고 자신의 경험을 해석해낼 수 있도록, 의심이 아니라 지지가 될 수 있도록 연구소에서는 더욱 연구활동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 #미투시민행동 상황실에서 온 편지

집회덕후Jr.가 되어 돌아온\_감이

’

3월 15일 프레스센터에서

〈미투운동과함께하는시민행동(이하 미투시민행동)〉의

출범을 알리는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부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에서 활동가 한 명씩이 파견되어

상황실을 구성하여 한 달 동안 활동했습니다.

이 글은 상황실에서 보낸 한 달을 회고하는 감이의 글입니다.

### 성문화운동팀 앞과 신아에게,

상담소 활동가들 모두 잘 지내나요? 앞, 신아 두 사람도 별일 없죠? (아련) 저는 상황실에서 잘 지내요. 맛있는 것도 잘 챙겨먹고 있어요. 이제 이 곳도 며칠 후면 마무리가 되고, 저도 다시 제 자리로 출근하게 되겠네요. 시원하기만 할 줄 알았는데, 섭섭하기도 한 이 마음, 왜 일까요? 이 물음에 답을 하려면 한 달 전으로 돌아가야겠네요.

올해 초 전국 언론사의 정치부/사회부/여성부 관련 기자들은 우리 상담소에 한 번 이상씩은 전화했을 거라고 얘기할 정도로 우리 상담소 전화는 매일 불이 났지요. 처음에 미투시민행동에서 만드는 상황실로 파견 가겠다고 자원해서 손을 들었던 이유는 정말 단순했어요. 제 머릿속에 있던 ‘상황실’의 이미



● 미투시민행동 출범 기자회견



● 3월 23일 첫 번째 성차별·성폭력 끝장문화제 <미투가 바꿀 세상 우리가 만든다> 전경

지는 쉽지가 않아요. 올리는 전화들이 줄지은 책상마다 놓여있는 것이었거든요. ‘우리한테 오는 전화들을 상황실로 연결하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가서 그 전화들 받으면 되겠구나.’ 그러나 그게 막연한 생각이었다는 건 바로 첫 회의에서 알 수 있었어요.

3월 15일 미투시민행동 출범 기자회견을 하고 난 다음 날, 첫 회의에 가보니 사무실 장소(위치)를 결정하는 것부터 사무실 세팅뿐 아니라, 연말까지 미투시민행동의 활동들을 큰 틀부터 세세하게까지 기획하고 준비해야 하는 어마어마한 곳이었어요. 전화만 받으면 될거라 단순하게 생각했던 제 자신이 원망스러웠던 순간이었지요. 감사하게도 한국여성재단에서 1층의 박영숙홀을 한 달 동안 사용할 수 있게 해주셔서 월요일(3/19)부터 바로 일을 시작할 수 있었죠.

이곳에서 저는 홍보팀 업무를 맡았어요. [일일브리핑]은 제 업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요. 매일 아침마다 정책팀이 작성해서 보내주는 <오늘의 입장>과 시시각각 전국에서 준비되고 있는 미투관련 행사들을 알리는 <미투캘린더>, 언론에서 다루고 있는 미투와 관련한 새로운 소식과 관점들을 모은 <관련뉴

스클리핑>을 넣어 일일브리핑을 만들어 언론사 기자들에게 발송하고 각종 SNS에 올리는 일이에요. 참! 여기서 쓰는 뉴스레터 발송 사이트가 정말 편리하고 구성도 좋아요. 뉴스레터 보내느라 매달 고생하는 우리 팀에 정말 유용할 사이트더라고요! 참고합니다!

그리고 미투시민행동에서 준비하는 행사들의 보도자료를 만들어서 언론에 배포하는 일도 하고 있어요. 첫 회의에서 매주 집회를 준비해야 한다는 소식을 듣고 막막했던 기억이 나네요. (눈물) 박근혜 퇴진을 외치던 광화문 광장의 집회대오가 떠오르면서, 그 힘든 집회 준비를 어떻게 매주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많았어요. 하지만 상황실의 다른 활동가들은 걱정보다는 설렘이 더 커보이더라고요. 미투 운동과 함께하는 시민들을 직접 만나서 함께 구호를 외치는 상상을 하는 것만으로도 힘이 불끈 솟는 것 같았어요.

<2018분 동안의 이어말하기>를 1박 2일 (3/22-23)동안 진행한 데 이어 <성차별·성폭력 끝장문화제>까지 하면서 저는 어느덧 상황실 활동가들의 현실



● 3월 23일 <2018분 동안의 이어말하기> 마지막 장면



● 상황실 활동가들 단체사진



● 5월 17일 네 번째 성차별·성폭력 끝장집회 <우리는 멈추지 않는다> 전경

인식에 동의하게 되었어요. 33시간 38분 동안 마이크 앞에 서서 당당하게 자신의 경험을 말한 193명과 그 이야기를 듣고 공감하기 위해 청계광장으로 혹은 온라인 생중계로 함께한 수 천명의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나도 추웠던 청계광장이 순간순간의 감동으로 채워졌거든요. 그리고 “미투가 바꿀 세상 우리가 만들자!”라고 모두가 한 목소리로 외칠 때도 온몸에 소름이 돋을 만큼 감동적이었어요. 4월 7일 연남동 경의선 숲길에서 열렸던 두 번째 <성차별·성폭력 끝장집회>에서도 그 감동이 계속되면서 집회에 대한 회의감도 점점 줄어들었고, 오히려 다음 집회를 더 기다리게 되어버렸어요. 집회마다 느끼게 된 것은, ‘그래 우리가 해냈다!’라는 것과 ‘이 변화들을 우리가 직접 만들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감이었어요.

한 달이라는 시간을 계획하고 만들어진 상황실에서의 경험은 기존에 우리가 해온 연대활동과는 또 다른 경험이었답니다. #미투 운동은 가히 젠더혁명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 변혁의 시기 한 가운데에서 상황실은 여성운동의 새로운 역사를 쓰는 과정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바로 그 공간에서 상담소의 활동가로서 저는 다른 단체 활동가들과의 협업을 통해 정말 많은 것을 느낄 수 있답니다. 매일매일 새로 터

지는 이슈에 각자가 생각하는 문제의식과 대응방식은 닮아있기도 하고 또 확연히 다르기도 해요. 각 단체의 성격이 드러나는 순간마다, ‘바로 이런 차이들이 다양한 여성운동의 모습들로 다채롭게 엮어지고 있구나’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상황실을 마무리하면서, 이곳에서의 경험은 앞으로 제 활동에 큰 양분이 될 것 같아요. 다른 활동가들에게도 강하게 추천합니다!

미투에 동참하는 모든 생존자들과 위드유로 함께하는 시민들을 온 마음을 다해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우리가 내는 용기로! 미투로! 세상은 바뀔 것이고, 그 변화는 지금 이 순간에도 진행되고 있다고 믿어요.

덧, 상황실 활동가들에게 보내는 한마디 “한 달 동안 함께 고생한 정, 재정, 노력, 달걀, 장수, 영순, 예린 당신들은 정말 멋진 활동가들이예요! 🍷

#미투운동과함께하는시민행동 SNS  
 페이스북 페이지/트위터 @metooaction2018  
 티스토리 블로그 metooaction2018.tistory.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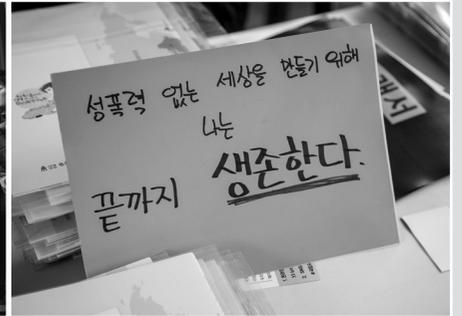
1월

- 1/23 故 장자연사건 재수사 촉구 기자회견
- 1/25 2018년 제27차 한국성폭력상담소 정기총회

2월

- 2/1 검찰 내 성폭력 사건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
- 2/14 제1322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 2/16~25 활동가 국제교류협력 : CEDAW NGO 회의(스위스 제네바)
- 2/27 <모두를 위한 페미니즘 교육 자금 당장!> 기자회견

핀다 상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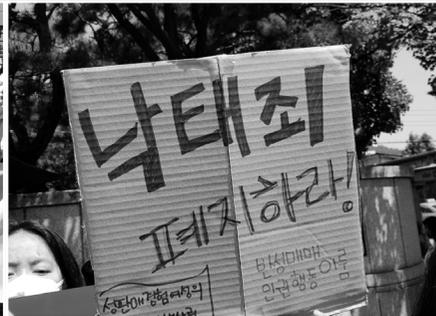
3월

- 3/4 3.8 세계 여성의 날 기념 한국여성대회
- 3/5 문화예술계 내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 기자회견
- 3/15 KSVRC 회원놀이터 <버라이어티 생존 토크쇼> 공동체상영
- 3/15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 출범
- 3/22~23 2018분 동안의 이어말하기, 성차별·성폭력 끝장문화제 @청계광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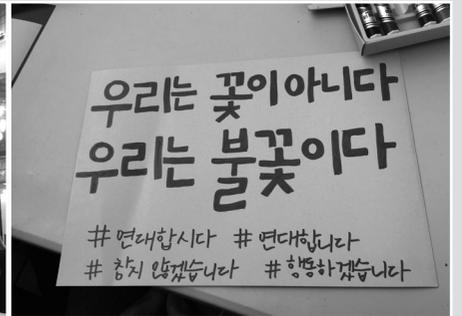
4월

- 4/7 두 번째 성차별·성폭력 끝장집회 "미투가 바꿀세상 우리가 만들자" @경의선순길
- 4/9 헌법재판소 낙태죄 위헌 의견서 제출
- 4/12 [의지로 집담회] 피해와 생계 사이, 직장 내 성폭력을 말하다
- 4/13 균형법 제92조의6 추행죄 폐지 캠페인 돌입 기자회견 <분노를 넘어 폐지로, 폐지를 통해 평등으로>
- 4/13 오랜 후원회원 감사의 밤
- 4/19 [의지로 열린 포럼] 성폭력 역고소를 해체하다
- 4/21 세 번째 성차별·성폭력 끝장집회 "미투가 바꿀세상 우리가 만들자" @혜화역
- 4/26~28 상근활동가 워크숍 @제천



5월

- 5/14 지방선거 혐오대응 전국네트워크 발족
- 5/17 강남역 여성살해사건 2주기 추모 및 네 번째 성차별·성폭력 끝장집회 "우리는 멈추지 않는다" @강남역
- 5/17~25 활동가 국제교류협력: #미투부터 자기방어훈련까지 (미국 LA, 루이지애나)
- 5/24 낙태죄 위헌 선언 및 위헌 결정 촉구 기자회견 <낙태죄는 위헌이다>
- 5/28 월경의 날 기념 기자회견 <모두를 위한 안전한 생리대, 지금 당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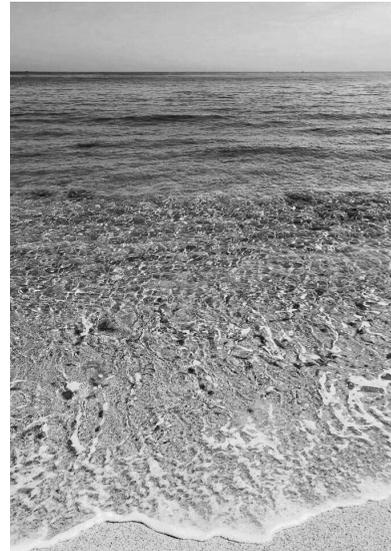
6월

- 6/12 성폭력피해생존자를 위한 <일상을 바꾸는 여성주의 자기방어훈련> 시작
- 6/15 [긴급토론회] 불법촬영과 편파수사의 젠더정치
- 6/19 지방선거 혐오대응 네트워크 김문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 6/20 상담원 감사의 밤
- 6/21 <질문을 바꾸는 섹슈얼리티 강의> 시작

이런 호부터  
 <열린터 다이어리> 코너는  
 열린터 일상을 담을 수 있도록  
 생활인들과 활동가들이 쓴  
 짤막한 글을 신습니다.

열린터는 치유회복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지난 5월, 강원도 강릉으로 1박 2일 봄나들이캠프를 다녀왔습니다. 올해 캠프는 공모전 형식으로 진행했어요. 생활인들이 스스로 여행기획안을 작성, 제출하여 이 중 투표로 선정된 계획으로 모든 일정이 채워졌습니다. 여행 기록도 각자 찍은 사진을 출품하여 상담소 활동가들의 열띤 심사로 수상작도 선정하였습니다. 캠프 후기는 전학 준비 중이라 학교를 안 가 심심해하던 막내 생활인 하늘이가 써주었습니다. 시큰둥하게 있기에 별로 감흥이 없는 줄 알았는데 여행 틈틈이 잘 즐기고 있었네요 :) 북적북적 신났던 봄나들이 캠프의 순간들을 캠프 후기와 사진공모전 수상작으로 전합니다.

사진공모전 수상작



● 공모전 수상(종합)



● 공모전 수상(인물)



● 공모전 수상(풍경)

캠프 다녀와서

\_하늘

5월 12일에 열린터 식구들이랑 강릉으로 캠프를 갔다. KTX를 처음 탔는데 비행기를 타는 것처럼 귀가 막혀서 자다가 깜짝 놀랐다.

점심으로 강릉에서 유명하다고 하는 순두부 마을에 가서 순두부를 먹었는데 별 기대를 안 하고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너무 맛있었다. 피노키오 박물관에 갔는데 사진 공모를 한다고 해서 사진을 찍었다. 풍경 사진이나 뭔가를 찍을 때면 기분이 좋아지는데 그 때만큼은 기분이 최고였던 것 같다. 박물관에서는 발로 밟고 올라가는 곳에 올라가서 내가 한쪽 팔을 들면 인형도 똑같이 팔을 올리고 하는 것이 신기했고 그중에서 피노키오 인형이 제일 귀여웠다.

숙소로 가는 길에 바다가 반짝반짝해서 너무 예뻐다. 나는 차 끝자리에 앉아서 제대로 못 봤는데도 그렇게 예쁘게 제대로 보면 얼마나 예뻐올까! 차에서 내렸는데 바다도 예쁘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하늘도 너무 예뻐서 감성이 풍부해졌다. 숙소의 창문이 너무 커서 숙소에 있는 동안 바다만 보았다. 저녁에 고기 바비큐를 먹었는데 먹을 때가 제일 행복한 것 같다. 12시쯤에 치킨도 먹고 라면도 먹었다. 캠프에서 내내 너무 잘 먹어서 5kg이나 살이 찼다.

두 번째 날이자 마지막 날에 점심으로 회를 먹었다. 회를 좋아해서 전부터 실컷 먹고 싶었는데 회도 많이 먹고 처음으로 전복도 먹어 보았다. 그러나 전복은 기대만큼 맛있지는 않았다. 횡집에서 조금만 가면 카페거리가 있어 카페에 들어갔는데 분위기가 좋았고 특히 바다를 보면서 녹차를 마시니 더 맛이 있었다.

강릉을 처음 가 보았는데 조용해서 좋았다. 이번 여행에서 좋은 것이 많았지만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은 예쁜 하늘이었다.

# 변두리 에서

\_김삼

달이 떴고 나는 하얀 땀띠가 원피스를 입고 있었죠 누군가의 곁에서라도 자고 싶었는데요 그게 너였죠 거미가 기어 올라오네요 우린 캠핑을 하는 것도 아니었는데, 내 꿈은 거미여인 혹은 표범여인 중요한 건 여인이 아니라 거미나 표범이죠 사람 아닌 것이 될 수 있는 사람이고 싶었죠 저주에 걸리고 싶었죠 나에게 허락되지 않은 둘 그래서 혼이 났죠 거미도 표범도 아니면서 말이에요 원피스가 뒤집힌 일에 관하여 종알종알 떠들어댄 밤, 달이 떴고 나를 빼고 모두를 믿을 수 있었어요 나에게 허락되지 않은 밀담 그래서 혼이 났죠 나는 더 이상 둘을 꿈꾸지도 밀담을 속삭이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혼이 났죠 신을 의심하기 시작하죠 왜 나는 혼이 나나요 동그라미와 동그라미, 그 안에 나는 작은 동그라미로 지워지는 중이에요

스무살에도 달은 뜨죠 달이 뜨면 눈을 뜨고 사랑하는 이의 피를 마시는 뱀파이어가 되고 싶었죠 사랑을 저주했어요 저주에 걸리지 않으니 내가 하는 수밖이에요 나는 살아 있는 저주였죠 걸어 다니는 저주랄까 나는 믿는 거 없이 가난했어요 누가 가난을 나무라나요 오히려 가난은 자랑이었죠 모두들

내 가난을 좋아했어요 스무살 두 번의 달이 떴고 그들은 내 가난을 칭찬했어요 나는 모든 게 빨리 끝나기만을 바랐어요 치켜뜬 눈으로 달을 노려보죠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것뿐이라는 걸 달도 알죠 나를 비웃는 달, 나는 더 크게 웃었어요 미친년, 정말 미친년이 뭔지 보여줄까? 오 년 만에 발명한 정신병을 자랑처럼 달고 다녀요 왠치는 헛소문이죠 불쌍한 부모는 그걸 꿈꾸고 내 목소리는 더 커져요 입 안에서 보글보글 동그란 거품들만 쏟아져 나오죠

십 년이 지났어요 세상에, 아직도 원 안으로 편입되길 바라는 사람이 있군요 나는 변두리에서라도 살아 있고 싶었어요 미투를 농담처럼 말하지 마세요 그럴 거면 제발 닥쳐요 달을 너무 믿진 마세요 조금 더 오래 제 말을 들어보세요



## 행동할 권리 (1/2)

\_만두

\*이 글은  
83호까지 2회  
연재됩니다

2017년 1월, 최순실 국정농단, 박근혜 탄핵, 광화문 광장의 촛불집회. 일련의 뒤숭숭한 뉴스들을 보며 나도 광화문에 촛불을 들고 나가야겠다고 결심했다. 옆에 앉은 엄마에게 물었다. “엄마, 엄마는 5.18 민주화 운동 때 참여했었어?” 무심하게 TV를 보며 엄마는 대답했다. “아니, 엄마 고등학교 친구가 시위에 나갔다가 끌려가서 물고문 당해서는 몇 달 후에 바보가 되어서 왔더라. 엄마는 무서워서 못 했어. 그 친구 정말 똑똑했었는데..”

엄마는 행동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이어지는 장면으로 세월호 유가족들의 진상규명 시위 장면이 등장했다. 엄마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투덜거렸다. “자식 죽은 거 그만 좀 우려먹지, 지겨워 죽겠어. 왜 아직도 난리니?” 그 말에 발끈한 나는 엄마에게 내가 저렇게 죽어도 그렇게 말할 수 있냐고 반문했다.

다음날 이어지는 영망진창의 뉴스를 보며 나는 박근혜와 최순실 욕을 했다. 옆에서 밥을 먹고 있던 아빠는 저런 뉴스가 “지겹다”고 말했다. 사건이 해결되건 말건 관계없이 왜 아직도 저절로 시끄럽게 뉴스에서 떠들어대고 시위를 나가는지 모르겠다고 이야기하며 들고 있던 깎두기를 마저 씹었다. 나는 인상을 찡그리며 말없이 뉴스를 봤다.

주말, 토익 스피킹 준비하라 공모전 준비하라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취업준비를 하던 난 제출할 PPT 제작을 빠르게 끝내고 같은 과 동기와 함께 학교 후문 편의점에서 마스크를 샀다.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환승해 광화문에 도착했다. 끝없이 이어진 행렬. 차 하나 없는 8차선 도로. 전동 휠체어를 탄 아저씨들도 손에 촛불을 들고 사람으로 가득 찬 도로를 따라 움직이고 있었다. 다리 쪽 펴고 앉을 자리 하나 없는 광장이지만, 그 누구도 화내거나 소리치지 않았다.

난 친구 손을 잡고 광화문 중심까지 거슬러 올라갔다. 광화문 광장 중심에는 노란 천막이 있었다. 사람들이 도란도란 앉아 노란 리본을 만들고 있었다. 아직 찾지 못한 아이들의 사진도 문구와 함께 걸려있었다.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다.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가 울컥, 하고 뜨겁게 차오르는 느낌이 들었다. 친구와 나는 오래도록 그 곳에 있었다. 구호도 함께 외치고, 촛불 하나 흔들며 이름도 나이도 모르는 그 수많은 사람들과 공통된 마음 하나로 그 자리에서 껏꿏이 버텼다.

막차를 타고 여차여차 집에 도착하니, 부모님이 TV앞에 모여 뉴스를 보고 있었다. 광화문 앞에 집결된 인원이 100만명이 넘어갔다는 뉴스 속보. 빛나는 촛불의 물결. 평화로운 시위. 일련의 단어들 지나갔다. 나는 가족 누구에게도 그 시위에 다녀왔다고 이야기하지 않았다.

엄마와 아빠는 세월호 사건을 이야기 하듯이 내 상처에 대해 지겹다고 말했다. 내 부모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엄마가 미워요, 오빠가 싫어요, 아빠가 불편해요.”

몇 달 전 대학 졸업을 앞두고, 나는 무언가에 이끌려 난생 처음으로 내 이야기를 어딘가에 하고 싶었다. 그래서 나는 대학교 상담센터를 찾았고, 희망하는 상담 주제를 기재하는 칸에 위치럼 적었다. 가장 간결하지만 가장 적절한 표현이었다. 상담 선생님은 나를 처음 만날 날, 내게 생존자라고 했다. 그리고 하루빨리 그 집에서 독립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당시 나는 집에서 항상 방문을 잠그고 있어야만 마음이 놓였고,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심장이 쿵쿵거렸다. 때때로 살인 충동이 들었고, 자주 공격적으로 행동했다. 나는 사랑 받고

싶지만 상처에 둘러싸여 가시로 한껏 방어하는, 고슴도치였다. 엄마와 오빠는 가해자였고, 아빠는 방관자였다. 엄마는 오빠를 편애하며 나를 학대했고, 오빠는 엄마의 편애에 힘입어 나를 성폭행하고 폭행을 휘둘렀다. 아빠는 가정에 무관심하고 자기 자신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었다. 엄마는 나에게 너 같은 애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자기가 더 행복했을 거라고 했다. 그래서 나는 생일마다 세상에 다시는 나 같은 아이가 태어나지 않기를 바랐다. 얼마나 외로울지 알기 때문이다.

사실 난 오빠의 성폭행 사실들로 열림터에 입소했지만 나에게 가장 큰 상처를 준 사람은 성범죄 가해자가 아닌, 엄마였다. 오빠는 어릴 때부터 다양한 방법으로 나를 괴롭혔다. 가장 인정하기 싫지만 슬픈 사실은 그 모든 일들의 동조자는 엄마라는 사실이다. 한창 2차 성징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13살, 욕조에 물을 받아 목욕을 할 때마다 오빠는 대변이 마렵다는 이유로 문을 열게 했다. 그리고 나가지 않고 한 시간이고 두 시간이고 내 알몸을 쳐다봤다. 한번은 그게 너무 싫어서 문을 열지 않겠다고 소리를 질렀는데 엄마의 폭언이 날라왔다. 미친년아 문 당장 열어, 지금 너 오빠가 용변이 급하다잖아. 나는 문을 열었다. 오빠가 집에서 내 엉덩이에 자기 성기를 가져다 대고 비비며 아무 짓도 안 했다고 발뺌하던 날, 집에 돌아온 엄마에게 이 사실에 대해 이야기하며 엉엉 울었다. 엄마는 나를 안아주지도 달래주지도 않았다. 대신 나란히 오빠와 무릎 꿇고 앉아 매를 맞았다. 엄마는 나도 잘못했다고 말했다. 엄마 내가 뭘 잘못했어? 마음의 소리가 웅웅댔다. 집을 나오기 전, 엄마에게 마지막으로 오빠의 가해사실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었다. 엄마는 오빠를 두둔하며 자기는 살인을 저지른 자식을 둔 부모의 마음을 이해한다고 했다. 그리고 나에게 왜 지나간 일을 가지고 아직도 유난이냐며 욕박질렀다. 이미 오빠가 한 번 사과하지 않았냐고 하면서 말이다. 하지만 억지로 받은 사과는 나에게 아무 위로도 되지 않는다. 단 한 번의 사과로 수십 년의 모든 상처가 없었던 일이 되지 않는

다. 엄마는 그걸 모르는 사람이었다.

놀랍겠지만 엄마의 만행은 이것뿐만이 아니다. 자신을 시집살이 시킨 큰 고모를 내가 닮았다는 이유로 명절 때마다 이유 없이 나를 때리고 괴롭혔으며, 고모가 자살한 후에도 그 이야기를 꺼내면서 내가 큰고모를 닮아서 끔찍하다고 했다. 울며 떼를 쓰던 3살 무렵의 기억이 있는데, 내 입과 코를 틀어막고 죽으라고 소리쳤다. 나는 숨을 쉬지 못해서 울음을 삼켜냈다. 애정결핍으로 베개를 빠는 버릇이 있었는데, 엄마는 그걸 보더니 내가 애착을 가지는 베개에 바퀴벌레 스프레이 한 통을 다 뿌리고 그래도 좋으면 끌어안고 자라고 했다. 좀 더 자라서는 공부를 못하면 죽도록 맞았다. 너는 악마 같은 아이니까, 인성이 더러우니 공부라도 잘 해야 한다며 엄마는 나를 모질게 대했다. 상을 받아도 칭찬을 받아본 기억이 없다. 항상 나보다 더 좋은 점수를 받은 아이와 비교하며 나를 욕박질렀다. 엄마는 공부를 못해도 괜찮은, 나를 때리고 성추행하는 오빠를 가장 먼저 챙겨줬다. 나는 항상 뒷전이었다. 너무 외로워서 아빠에게라도 사랑 받고 싶었다. 하지만 아빠는 한 달에 한 번 집에 와도 하루 종일 잠만 자는 사람이었다. 내가 아빠를 찾자 엄마는 그걸 못 견디고 또 다시 나를 고립시켰다. 립스틱 자국이 묻은 아빠의 하얀 와이셔츠와, 알 수 없는 커플링을 건네면서 너희 아빠는 바람을 피우는 나쁜 사람이라고 내게 말했다. 나는 겨우 초등학생이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엄마는 바람을 피웠다. 남자에게 선물 받은 금 목걸이를 보여주면서 이번 아저씨는 어떤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나를 그 아저씨에게 소개시켜주면서 같이 밥을 먹게 했다. 이 모든 건 오빠에게 비밀이었다. 엄마는 오롯이 내가 엄마를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더 나아가 동일시되기를 바랐다. 나는 그렇게라도 사랑 받을 수 있다면 괜찮다고 생각해서 집에 남아있었다. 엄마의 모든 사랑에는 성적, 집안일, 비밀 유지 등의 조건이 있었다. 그 조건은 내가 아무리 채우고 채워도 부족했다. ㉪

생존자 만두 님의 <행동할 권리>는 83호에 이어집니다.

# 숨기는 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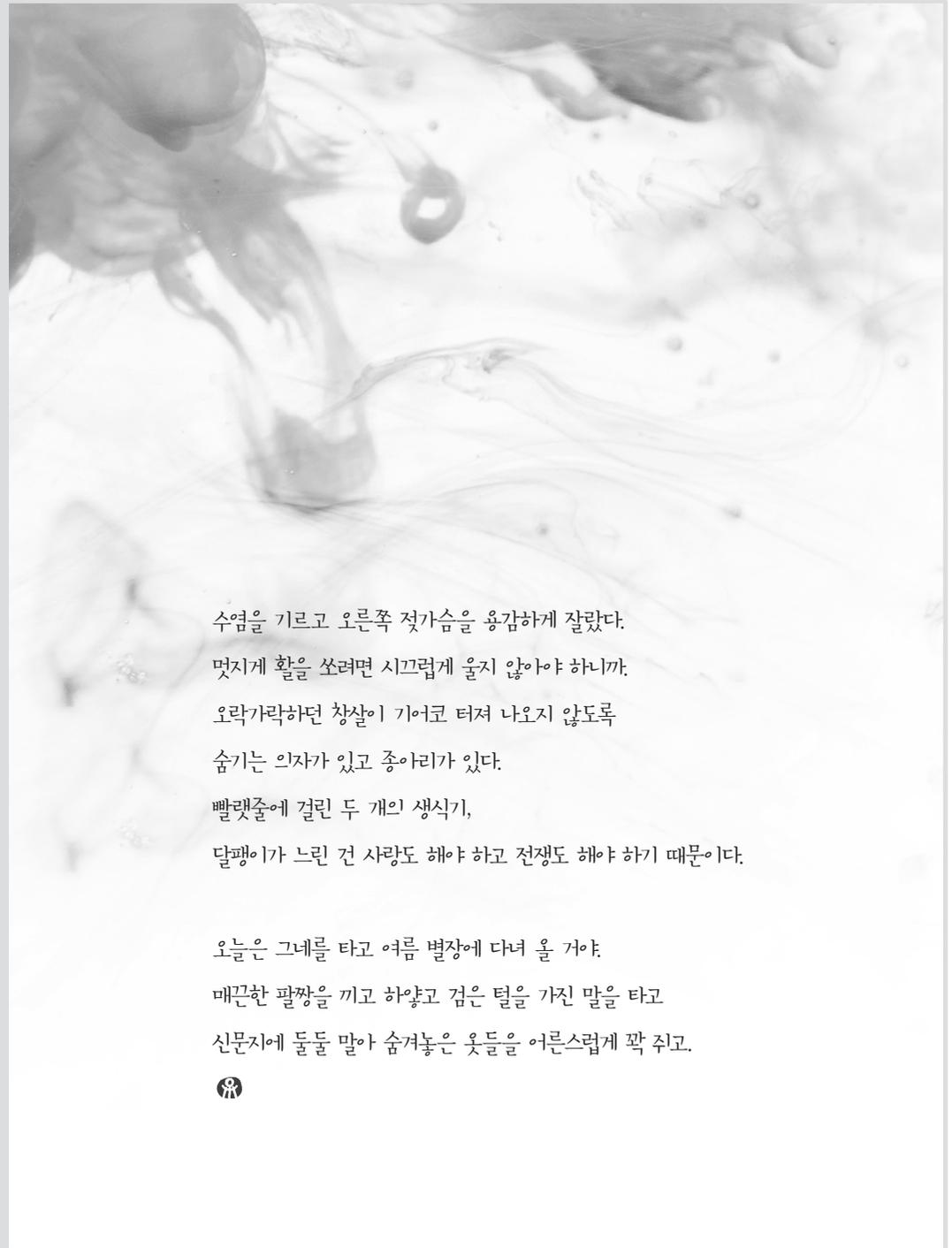
\_ 이리아

숨기는 옷으로  
성별이 생긴다.

부끄러운 옷.

숨기는 옷에는 끝의 냄새가 난다. 아슬아슬한 말끝에 입는 옷,  
단단하게 늙은 늑골이 물렁해진 끈.  
버클에는 뭉개진 립스틱과 색 바랜 빨래집게, 뒤집힌 베갯잇,  
올 나간 스타킹 같은 무심한 하녀들만 걸렸다.  
혼자만 보기로 하고 방안에 숨겨놓은 타인.  
거울은 옥상 위 늘어진 빨랫줄의 텅 빈 미열을 비쳤다.  
정원에는 자갈이 많았다.  
자갈은 스스로 정원을 유혹하지 못하지만,  
변명을 둘러대며 굴러 다녔다.  
자갈을 굴리지 말아줘, 흥에 취하면 정원은 꿈쩍없이 타버렸다.

\* <시와표현> 2018년 6월호 수록



수염을 기르고 오른쪽 젖가슴을 용감하게 잘랐다.  
멋지게 활을 쏘려면 시끄럽게 울지 않아야 하니까.  
오락가락하던 창살이 기어코 터져 나오지 않도록  
숨기는 의자가 있고 종이리가 있다.  
빨랫줄에 걸린 두 개의 생식기,  
달팽이가 느린 건 사랑도 해야 하고 전쟁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오늘은 그네를 타고 여름 별장에 다녀 올 거야.  
매끈한 팔짱을 끼고 하얗고 검은 털을 가진 말을 타고  
신문지에 둘둘 말아 숨겨놓은 옷들을 어른스럽게 짝 쥐고.



# #MeToo 엄마에게 (쓰는 편지) (1/2)

\*이 글은  
83호까지 2회  
연재됩니다

\_리아



엄마, me 는 나 라는 뜻이고, too는 나도, 역시나 똑같다, 라는 뜻이야.

엄마, #, 이 우물 모양은 해시태그라는 건데,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 글을 쓸 때 이 우물 모양, (이거는 컴퓨터 자판에 숫자 3 이랑 같이 있어) 이 모양을 metoo 하고 같이 쓰면, “#metoo”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걸 붙인 글들은 모두 한번에 찾아볼 수 있고 연결할 수 있어. 검색하는 간에, #metoo 이렇게 써 넣으면 비슷한 글들이 줄줄이 나와. 오늘은 나도 한번 #metoo 써보려는데, 내 이야기 속에 엄마의 이야기야.

...

엄마, 미안해. 엄마 너무 미안해. 엄마의 아픈 기억을 물어서. 엄마도 이야기 했듯이 이 이야기를 하고 나서 엄마는 험한 꿈을 꾸고, 밤새 뒤척이고, 어떤 밤에는 잠이 안 들어서 엄마가 수면제를 먹었잖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 엄마가 그런 기억이 있는 줄 몰랐어. 엄마한테 괜히 옛날 이야기를 물어. 정말 내가 몰랐으면 좋았겠다, 라고 생각했어. 그럼 내가 아빠에 대해서 훨씬 더 너그러워 졌을 거니까. 그러면 내가 아픈 아빠에 대해서 불쌍하게 생각하던 그대로 지낼 수 있었을 테니까.

엄마 이야기를 들은 그날 이후로 아빠 눈을 쳐다볼 수가 없었어. 아빠하고 같이 밥 먹는 것도 싫었고, 아빠하고 말 섞는 것도 싫었어. 내 마음 같아서는 엄마가 어서 아빠하고 이혼했으면 좋겠는데, 병든 아빠가 불쌍해서 아빠 돌

아가실 때까지 밤은 해줘야 한다는 엄마 말에 나도 할 말이 없었어. “엄마, 어떻게 가해자 하고 살아? 어떻게 40 년 넘게 살아왔어?”라고 물을 수 없었어. 그러면 엄마가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아니, 나를 용서할 없을 것 같아서. 엄마가 집에서 도망쳐 나올 때 마다, 다섯 살의 내가 엄마를 조르면서 그랬다면. “엄마, 집에 돌아가자, 응? 아빠하고 오빠야 하고 같이 살아야지. 우리 집에 빨리 안 가면 할아버지한테 혼나잖아. 빨리 집에 가자, 응?”

엄마, 내가 그 다섯 살의 나를 용서할 수 있을까? 엄마는 그 쪼그만 나를 보호하려고 그동안 말하지 않았으니까. 엄마는 내가 삼십대 중반이 되도록 말하지 않았으니까. 엄마 속은 괜찮아? 시꺼멓게 문드러져서 다 타버린 건 아닌거야? 나랑 이야기 하다가, 내가 괜히 엄마를 들쭉신거지, 그래서 엄마가 밤새 기억과 씨름하고 수면제를 먹어야 했어. 미안해 엄마.

엄마, 엄마는 그런데도 어떻게 그렇게 아이 같이 해맑게 웃을 수 있어? 별 것 아닌 것들에, 앞에 공원에서 시소를 타면서, 아빠의 썰렁한 농담에, 어쩔 그렇게 활짝 웃을 수 있는지. 세월이 흐르면 괜찮은 거야? 과거를 붙들고 있는 건 나인가봐. 아빠를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건 나인가 봐. 엄마. 재작년에, 작년에 내가 애인이랑 헤어지고 너무 힘들 때, 예전처럼 다시 웃을 수 없을 거라 생각했어. 나는 다시는 그렇게 신나게 웃을 수 없을 것 같았어. 나에게 웃음이 남아있을까. 그리고 그에게는. 엄마의 웃음을 볼 때마다 나는 웃어야 하는지 울어야 하는지 모르겠어. 엄마가 컴퓨터 기초반을 들을 때, 강사 선

생님이 엄마가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을 수업에서 예시로 사용했다고 엄마가 나에게 자랑을 했잖아. 내가 찍은 엄마의 사진... 엄마와 내가 나들이를 갔을 때 찍은 사진. 엄마가 내가 든 카메라 앞에서 그렇게 활짝 웃어서 기뻐. 그런데 엄마, 나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 같아. 그렇게 활짝 웃기까지는. 그렇게 아이 같이 웃기까지는.

...

“엄마, 그때 왜 낙태 수술 한 거야?”

어쩌다 엄마와 낙태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 엄마는 매번 조금씩 말이 달랐어. 어떤 때는 한 번 했다고 하고, 나중에는 두 번 했다고 했어. 오빠 전에 한 번. 나 전에 한 번. 나 역시 낳을까 말까 고민했다고.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는 무섭기도 하고, 엄마한테 서운하고 화도 났었는데 이제는 이해해. 자식 하나는, 게다가 아들은 아빠하고 놔두고 도망갈 수 있는데, 자식이 둘이 되면 엄마가 떠날 수가 없잖아. 아이를 셋 낳고 도망가지 못한 그 선녀처럼. 자식이 하나 하나 늘어갈수록 엄마는 더 도망갈 수 없는 거였잖아. 게다가 딸은 꼭 엄마가 키워야 험한 꼴, 성폭력 안 당한다고 엄마는 굳게 믿고 있으니까, 남자는 다 짐승이라는 걸 엄마는 경험했으니까, 엄마는 가출할 때마다 나를 데리고 간 거였어. 외갓집으로, 이모 집으로... 거기서 그 쪼그만 나는 집에 가자고 조르고.

집에서 도망쳐서 갈 곳이 없는 엄마에게 이모가 데리고 간 곳은 공사장 노가다 판이었어. 공사장에서 여자들은 커다란 고무 바케스에 벽돌을 잔뜩 싣고 머리에 지고 날랐어. 엄마는 벽돌을 하루 나르고 나서 몸살을 했고, 이모가, 거 봐라, 농사짓는 게 더 수월하다며 엄마를 설득했어. 글을 읽고 쓸 줄 모르는, 초등학교도 안 나온 엄마가 시집을 떠나서, 집을 도망 나와서 할 수 있는 일이란 노가다와 농사, 그런 험한 일 뿐이었지. 그리고 아마 성매매 시장... 대한민국에서 수 천, 수 만명의 여성들이 일하고 있는 그 시장. 이제는 다른 나라 여자들을 데리고 와서 장사하는 그 시장.

...

아빠는 싫다고 하는 엄마와 억지로 성관계하고 임신시켰어. 엄마는 아빠하고 헤어지려고 임신을 떼는 수술을 하고 아빠를 떠나려고 했고, 하지만 아빠는 끈질기게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엄마의 언니와 형제들에게 엄마랑 결혼하고 싶다고 설득하고 마음을 사려고 했었다지. 엄마는 아빠와 헤어지려고 6년을 도망 다녔는데, 한 번 한 남자에게 몸을 버린 이상, 다른 데 시집갈 곳이 없다고 생각했던 엄마는 포기 하듯이 결혼을 했어. 엄마랑 얼마 전에 목욕탕에 갔을 때, 시장 과일장사 아줌마가 그랬잖아. 아줌마 때는 맨 처음 뽀스(팬티) 벗는 남자한테 시집가야 하는 거였다고. 엄마가 두고 두고, “그때 안 했어야 했다”는 건 결혼이었어. 그때 결혼하지 않았어야 하는 거라고 엄마는 흘러가듯 말을 흐리곤 했어. “내가 초등학교만 나왔어도 ...”

그 말도 차마 입밖에 꺼내지 않았던 엄마.

맞아, 엄마 말이 맞는데, 엄마가 읽고 쓸 수 있었다면 더 나았을 텐데, 세상은, 한국은 그렇게 여자한테 살기 좋은 데가 절대 아니야. 그나마 한 남자한테 매어 있는게 안전한 데가 한국이었고, 한국이지. 남편 없는 여자는 아무나 강간할 수 있는 무주공산으로 봤다잖아. 여자가 나갈 수 있는 세상이라고 정말 없더라고. 엄마 말이 너무 맞았어. 학교 교사가 그나마 여자들에게 가장 안전한 보루터라고. 엄마가 그렇게 부러워 하던 엄마의 외사촌처럼, 나도 교사가 되라는 엄마 말을 나는 왜 안 들었을까? 그 쪼그만 다섯 살의 내가 본, 엄마의 그 시꺼먼 마음을, 그 많은 눈물을 기억하고 싶었나 봐. 이렇게 말로 글로 쏟아내고 싶었나 봐. 그래야 죽지 않을 것 같았나 봐. 그래야 숨 쉴 수 있을 것 같았나 봐. ☹

생존자 리아 님의 <#Metoo 엄마에게 (쓰는 편지)>는 83호에 이어집니다.

# 치유의 꽃

\_ 이다

인증을 다쳤다 꽃이 졌다  
 내가 나를 이길 수 있을까  
 알 수 없이 손과 팔에 힘을 짝 주고  
 그가 아닌,  
 나를,  
 치욕스런 나를 이기고 싶었다

나도 모르게 몸이 오른쪽으로 기울고  
 왼쪽으로 휘어져도  
 애를 쓰며 서있었다

몸에는 하나의 관이 그날 이후  
 울음을 멈추지 않았다  
 어느 날은 서걱서걱,  
 또 어떤 날은 우우 울음을 운다

당신은 화가 났습니까?  
 아니요  
 가슴께에서 화기가 느껴진다  
 당신은 울고 있습니까?  
 아니요  
 뼈에서는 눈물이 난다

잃어버린 나를 되묻고  
 울음을 이겨먹을 수 있습니까?

비쩍 말라버린 풀잎같이  
 몸에서도 꽃이 피어나기 시작한다  
 척박한 모래에서  
 보석처럼 울음이 반짝인다

이제 나는 나를 용서한다.



## 낙태죄 위헌 심판을 앞두고

‘사회정의’를  
외치는  
이유

“낙태죄를 폐지하라” feat. 앞

,

이 글은 글쓰기가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에서 활동하면서 느낀 문제의식과 고민을 담고 있습니다.

‘모낙페’는 2017년 9월 28일을 발족하여 낙태죄 폐지를 촉구하고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 연대체입니다.

지난 5월 24일,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 위헌소원에 대한 첫 공개변론이 진행되었습니다.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이하 ‘모낙페’)은 공개변론에 앞서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낙태죄는 위헌이다> 낙태죄 위헌 판결 촉구 기자회견을 주관하였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시민 백여 명이 한목소리로 ‘낙태죄는 위헌이다’, ‘낙태죄를 폐지하라’라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2년에도 ‘낙태죄’ 위헌 여부를 심판한 바 있습니다. 당시 공석인 한 자리를 제외하고 총 8명의 재판관 중 합헌 의견 4명 대 위헌 의견 4명으로 판단이 팽팽하게 맞섰으나, 위헌 결정에 필요한 6명 이상의 찬성을 모으지 못해 아쉽게 합헌 결정이 선고되었습니다. 위 판결에서 헌법재판소는 합헌 결정의 근거로 ‘여성의 결정권이라는 사익이 태아의 생명권 보호라는 공익보다 중하다고 볼 수 없다’는 잘못된 대립 구도를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낙태죄는 ‘여성의 결정권’ 대 ‘태아의 생명권’의 문제로 단순하게 이해될 수 없습니다. 애초에 임신중지를 하는 여성에게 실제로 ‘결정권’이 있는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원치 않는 임신을 한 여성은 배우자 또는 파트너의 의



● 5월 24일 낙태죄 위헌 선언 및 위헌 결정 촉구 기자회견 중

사, 임신·출산·양육에 따르는 사회경제적 불이익, 양육에 필요한 비용과 돌봄 노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임신중지를 결정합니다. 비혼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낙인, 여성의 경력단절 사유 중 50% 이상이 ‘임신·출산·양육’이라는 성차별적 노동현실, 실질적인 보육 지원 제도 및 아동 복지의 부재 등을 고려한다면 ‘여성의 결정권’이라는 용어는 여성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사회에 면죄부를 주고 있지 않은가 고민하게 됩니다.

‘여성의 결정권’을 근거로 임신중지를 한 여성을 비난하는 것은 마치 성폭력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었다는 전제하에 ‘왜 저항하지 않았는가’라고 묻는 것과 비슷합니다. 여성의 옷차림, 행실, 침묵 등을 동의로 간주하며 명시적 의사를 묻지 않는 사회문화에서, 심지어 여성의 ‘안 돼’를 ‘돼’라고 받아들이는 가해자중심적인 인식이 아직도 널리 퍼져있는 현실에서,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은 실존하는 것이라기보다 쟁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임신중지에 대한 ‘결정권’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아의 생명권’을 강조할 때 임신한 여성의 권리는 심각하게 침해되고 이로 인한 피해는 손쉽게 정당화됩니다. 다큐멘터리 영화 <낳을 권리, 낳지 않을 권리>에는 양수가 터져 감염된 여성에게 임신중지 주수 제한을 이유로 수술을 해주지 않거나, 임신 중인 여성이 태아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는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아동학대로 기소하는 등의 사례가 소개됩니다. 생명존중 논리는



● 7월 7일 낙태죄 위헌 촉구 퍼레이드 <여기서 끝내자>

언제나 여성의 권리를 후순위로 밀어내고 때로는 여성을 규제하는 데 적극적으로 이용됩니다. ‘여성의 결정권’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생명’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이미 태어나 있는 ‘여성’의 권리를 부차적이고 불완전한 것으로 전락시키지 말라는 뜻으로 요구된 최소한의 권리였습니다.

낙태죄는 평등권의 문제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동등하게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자신의 신체에 대하여 침해받지 않을 권리는 물론이고, 새로운 가족 형성과 같이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하여 주체적으로 결정할 권리를 마땅히 가져야 합니다. 안전하고 적합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하고, 성별 등을 이유로 차별적인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시위 행렬에서는 ‘여성은 인큐베이터가 아니다’, ‘나는 자궁이 아니라 사람이다’라는 구호가 끊이지 않습니다. 여성을 인구통계의 도구로 취급하는 법·정책에 반발하고, 여성도 고유한 삶과 존엄성을 가진 인간으로서 존중받아야 한다는 외침입니다.

모낙페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낙태죄’ 위헌 판결을 촉구하는 시민 서명> 운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7월 7일에는 낙태죄 위헌 촉구 퍼레이드 <여기서 끝내자>를 열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판결을 바로잡는 낙태죄 위헌 결정을 선고하도록 함께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

UN CEDAW 제69차 세션 한국 제8차 본심의 대응단 참가기

# 성평등의 국제적 기준을 한국사회로

스위스 제네바 특파원\_이미경

’

지난 2월 16일부터 일주일 동안 상담소 활동가 국제연대 기회를 이용해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UN의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참가하였습니다.

UN이 한국정부의 성평등 정책을 심의하는데 한국여성단체연합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위원회 위원들로 구성된 NGO참가단에 함께하게 된 것이지요.

설날에 이렇듯 후루룩 떠날 수 있음도 아주 설레고 특별한 경험이었답니다.

UN 여성차별철폐협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은 9개의 유엔 주요 협약 중 하나로,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이에요. 한국은 1984년 이 협약을 비준하여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본 심의에는 심의 대상국인 한국의 NGO활동가들이 직접 회의에 참가해 위원들과의 간담회 및 심의과정 모니터링, 수시 로비 등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된 것이지요.

2월 19일, 월요일 아침에는 UN본부에 들어가기 위한 간간한 보안검색대를 거쳐 출입증을 발급받는 것으로 하루가 시작되었어요. 오전에는 개회식에 참여하고 오후에는 심의대상국 NGO들이 각 10분씩 각국의 상황 소개와 여성차별철폐위원회 권고를 발표했어요. 한국 참가단은 세 번째 순서로 성공적으로 발표를 마치고 위원들의 질문이 쏟아지길 기대했지만 아쉽게도 2015년 일분군 ‘위안부’ 관련 한일합의에 대한 문제인 정부의 공식 입장을 보는 NGO의 입장을 묻는 질문만 받았어요. 이날의 공식일정이 끝난 후 참가단은 수요일



● 2011년 이후 7년만에 UN여성차별철폐위원회 본회의에서 심의받는 한국정부 참가단



● CEDAW위원들과 심의 대상 4개국 NGO간담회를 준비중인 한국 NGO참가단 회의모습

런치브리핑 준비에 들어갔어요.

2월 21일, 한국의 의제만을 가지고 위원들과 온전히 만나는 첫 번째 자리인 런치브리핑이 시작되었어요. 한국 여성의 처한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다음 날 진행될 한국정부 심의에서 위원들이 정부를 향해 질의할 내용을 설득력 있게 전달해야 하는 자리였습니다. 런치 브리핑의 내용은 크게 6가지로 주제로 진행되었는데요, 성평등 법제와 추진체계, 여성의 일과 건강에 대한 권리, 젠더기반 폭력, 취약계층 여성문제, 성평등 교육, 일본군 위안부 문제로 구성된 주제를 발표하였습니다. 성평등을 향한 우리의 도전과 열정이 세상을 바꿀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된 하루였어요.

2월 22일 목요일, 드디어 우리 정부가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날이 되었습니다. 여성가족부 장관과 담당자들, 법무부, 노동부, 교육부, 경찰청, 인사처 등 유관부처의 공무원들도 이틀 전에 도착해 심의받을 준비를 했다고 해요. 우리 NGO 참가단은 전날 런치브리핑에서 위원들이 질문한 내용을 보완해서 회의 시작 전에 전달하고자 밤을 새우다시피 하며 각 분야별

준비를 했어요. 아침 8시경 숙소를 나와 UN 회의장으로 향하는 발걸음에는 과연 어느 위원이 오늘 심의에서 한국 정부에 질의해 줄지 긴장감과 기대감이 함께 있었어요.

본회의장에 도착해 어제 간담회에서 질문했던 위원들과 아침 인사를 나누었어요. 다들 바쁜 와중에도 우리의 쪽지 질문지를 받아들고 설명을 들어주었지요. 드디어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의 모두발언 이후, 본격적인 질문이 시작되었는데요, 첫 질문이 한국 권고안 작성의 책임자인 83세의 필리핀 마날로 위원의 “차별금지법 제정을 왜 미루느냐”는 지적이어서 반가웠습니다. 비교적 보수적인 분이라고 들었는데 지금 한국에서 첨예한 반대에 부딪히고 있는 차별금지법을 짚어주다니요! 뭔가 잘될 것 같은 예감과 함께 감동이 밀려오더라고요. 하지만 법무부 담당자는 이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구하는 중이라는 형식적인 답변을 했어요. 그러자 스위스 솔츠 위원이 차별금지법은 점진적 이행이 아닌 여성차별철폐협약 비준 후 즉각적인 이행을 해야 한다고 썰기를 박는 발언을 해서 어찌나 시원하던지요.

위원들의 이어지는 질문들은 아주 날카롭게 우리 정부의 정책적 문제들을 짚어주셨어요. 우리는 각자 컴퓨터에서 SNS로 서로 연결하여 소감을 나누기도 하고 돌아가면서 속기를 했어요. 여성차별철폐협약의 조항 순서대로 위원들의 질문이 이어졌는데, 협약 5조 여성에 대한 폭력과 관련해서는 사이버성폭력의 규제와 대처 및 예방방안, 성폭력 무고죄/명예훼손죄에 대응노력, 수사과정에서의 피해자 고정관념 및 과거 성 이력 증거채택 금지, 통계수집, 강간범죄의 구성요건(폭행과 협박이 아니라 동의여부), 가정폭력방지법의 가정유지에 우선을 둔 목적조항의 문제, 가정폭력처벌법의 사실혼관계의 배우자의 적용여부, 부부간간의 범죄화, 취약계층 특히 탈북여성의 성폭력 피해 관련 정책 등 질문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하루종일 이어진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위원들이 정부보고서와 NGO 보고서를 꼼꼼하게 읽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한국 상황을 알고자 노력한 성의가 돋보였어요. 이번 저희 NGO 참가단의 로비도 그 노력 중 하나이기도 했지만, 우리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공부하는 위원들의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반면에 한국 정부의 답변은 기대에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실망스러웠어요. 그도 그럴 것이 여성가족부만 장관을 비롯한 국장과 실무진들이 오고, 법무부나 노동부, 인사처, 경찰청 등은 사무관들이 참여했는데, 거의 예상질문에 대해 미리 준비한 내용을 국어책 읽듯이 답변하는 수준이었어요. 어떤 부처 답변자는 의장과 위원들로부터 답변중단 요구와 함께 “그렇게 읽을 거면 자료를 우리에게 달라, 시간이 없다. 구체적인 답변을 하라”는 지적과 함께 호통을 듣기도 했어요. 적어도 책임있는 답변을 할 수 있는 담당자들이 와서 성실하게 각 부처의 성평등 정책에 대한 이행 과정을 이야기하고, 미진한 부분은 겸허히 지적을 받고 수정, 보완해가는 성숙한 모습을 기대했는데, 참 아쉬웠습니다.

모든 회의내용은 UN WebTV를 통해 생중계되었고,  
다시 보기도 가능해요.  
<https://bit.ly/2MGV8h0>

지난 3월 9일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는 한국정부에 최종견해를 발표했어요. 특히 젠더폭력 관련해서 형법 297조의 강간죄 구성요건을 폭행과 협박 여부에서 동의 여부로 바꾸라는 것을 시작으로 7가지의 권고를 내렸지요 (아래 표 참조). 이제 우리는 정부가 UN의 권고를 잘 이행해가도록 모니터링 및 제언하는 역할을 이어가겠습니다. 🌟

< 2018년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젠더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분야' 권고 >\*

2018. 3. 9.

- a. 「형법」 제 297조를 개정하여, 피해자의 자유로운 동의 부족을 중심으로 강간을 정의하고, 특히 배우자 강간을 범죄화할 것.
- b.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주요 목적을 피해자와 그 가족의 안전 보장이 되도록 개정할 것.
- c.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무고죄 적용과 같은 형사소송절차 상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사법 절차에서 성 이력을 증거로 채택하는 것을 금지할 것.
- d. 사이버 성폭력을 예방하는 조치를 강화하고 새로운 형태의 폭력을 명확히 범죄화하는 법안을 마련할 것.
- e.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 및 감독 체계를 수립하고, 가해자에 대한 의무적인 징계 조치 이행할 것.
- f. 학교, 대학, 군대 등 공공 기관에서의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보장하고 신고와 상담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철저한 비밀유지를 보장할 것.
- g. 성폭력 피해를 겪은 여성들을 포함하여, 북한이탈여성에 대한 효과적인 심리치료와 상담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들을 위한 센터에 충분한 재정을 지원할 것.

\* 번역\_ 류민희, 오경진, 임선희, 장보람, 전민경 / 종합 및 감수\_ 김기연, 오경진

# 내가 나일 수 있는 곳, Meka

더 좋은 세상을 만들고 싶은 겁쟁이\_임김혜리

9

세미나 단 한 번을 남겨두고 Meka 3기의 활동 후기를 쓰는 지금,  
아쉬운 마음과 보람차고 뿌듯한 마음이 교차합니다.  
Meka 나눔터기자단 3기는 6명의 자원활동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Meka에 들어오게 된 계기에도 6개의 이야기가 있지요.  
하지만 지면 관계상 그 중 제 이야기를 간단히 들려드릴까 합니다.

부모님께선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너는 귀중한 아이고 장차 멋진 사람이 될거야.” “네가 마음먹은 것은 무엇이든 다 이뤄낼 수 있다”고 계속해서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런 제가 페미니스트가 된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고, 될 수 있다고 생각한 것들에 손 뻗지 말라고 으박지르는 사회와 마주한 순간부터 저는 제가 제 권리를 쟁취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죠. 제가 대학에 입학한 첫 해인 2014년, 남자 동기들은 그들만의 단체 카톡방에서 여자 동기들의 ‘외모 순위’를 매겼습니다. ‘상위입상’한 동기들에게는 축하한다고 말을 건네고 ‘순위’에 꼽히지 못한 동기들에게는 은혜를 베푸는 듯 위로를 건넸습니다. 또 저는 2016년 1년간 일본으로 교환학생을 다녀왔는데요, 사회적으로 여러 면에서 우리나라보다 10년 앞서있다고 평가받는 일본이지만, 성평등 영역에 한해서 저는 이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제가 겪어온 성차별보다 더 교묘하고 간사한 성차별도 존재한다는 것을 1년 동안 여실히 실감했죠. 그 1년이 제게 미친 영향은 매우 컸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후에도 일본에서 받은 상처들로 휘청이는 나날이 계속되었습니다. 지금은 크

게 휘청거리는 대신 때때로 부들부들 떠는 정도입니다. 제 ‘휘청휘청’이 ‘때때로 부들부들’이 될 수 있었던 건 Meka의 덕이 큼니다. Meka 활동을 통해 제 상처에 대해 맘을 열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었고, 덕분에 상처가 단단한 흉터가 되어가는 중입니다.

사실 저는 매우 ‘축복받은’ 환경 속에 살고 있습니다. 본래 제가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에서는 제한적인 범위에서나마 맘껏 페미니즘에 대한 의견을 나눌 수 있고, 제 곁엔 제 이야기를 공감하고 지지하고 연대해주는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나 우리 사회의 현실을 고려하면 ‘축복’이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축복받은 환경 속에서도 저는 더 욕심을 내봤습니다. 학교 담장 밖의 사람들과도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한편으론 제 상처를 두고 더 많은 이들에게 위로받고 싶은 응석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한국성폭력상담소 나눔터기자단 Meka 3기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제 경우엔, Meka에 합류할 때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기자단 후기를 작성하기 위해 다른 분들에게 한마디씩 칭하며 처음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Meka에 참여하는 과정이 모두에게 쉽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한 분의 표현을 빌리자면, “(여성운동에) 합부로 손가락을 얹어도 될지” 많은 고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핸드폰을 들었다 내려놓기를 여러 번, 긴 고민 끝에 (후원회원 가입을 먼저 한 다음) 용기를 내어 Meka에 합류했다고 합니다. 그분은 페미니즘을 공부하는 과정이 “대안적인 정체성을 구성하는 과정일지도 모르겠다”며, “정체성은 홀로 생각해서 구축해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 구축되는 것이기에 Meka 세미나를 통해 정체성을 구축할 기회를 얻게 되어 기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3월 9일 금요일의 첫 모임을 시작으로, 현재 7월의 마지막 모임을 앞두고까지 길지 않은 기간이지만 여러 활동을 해왔습니다. 3월 22일 <2018분 동안의 이어말하기>에 다 함께 참여했고, 4월부터 6월까지 꾸준히 세미나를 이어왔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더 자주 모이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뻘한 소감일지도 모르겠으나, 마지막 세미나를 남겨두고 있는 지금 모든 Meka 3기 구성원들이 입을 모아 “왜 더 자주 모이지 못했는지” 탄식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이 봄-여름 Meka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어떤 시간이 되었을지 생각하기도



● Meka 3기 세미나 중

싫습니다. 나의 경험뿐만 아니라 모두의 경험을 함께 나눌 수 있었고, 다른 이의 경험을 듣는 것을 통해 그 사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여성주의의 담론에 참여하면서 제가 혼자라고 생각한 적은 없었습니다. 소수이지만 진심으로 뜻을 함께하는 '동지'들과 함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Meka 활동은 저를 둘러싼 테두리가 확대되는 경험이었습니다. 좁은 원을 넓히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사회 속, 그 변화의 흐름 한가운데에 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저 자신의 진정성에 대해 의심한 적도 있고, 이 대열 속에 끼어 있어도 괜찮을지 고민한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Meka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불필요한 의심과 의문이 사라졌고, 이 점이 무엇보다 좋았습니다.

사회는 분명 변화하고 있습니다. 아주 느린 거북이 걸음으로나마 차별을 하나씩 지워갈 수 있는 것은 이전까지 본인의 몫이 아닌 모욕을 받을지언정 자신의 응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던 수많은 이들의 기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이 용감한 목소리가 줄어들지 않고 점점 크게 들려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Meka 활동을 통해 이 흐름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참 따뜻한 공간이었습니다. 그 어떤 이야기를 털어놓아도 나를 선불리 판단하지 않는다는 확신을 주는 몇 안 되는 공간 중 하나였습니다. 제 용기가 되어주어 너무 고맙습니다. ☺

## 2018 상근활동가 워크숍 스케치

노는 게 제일 좋은\_신아



활동가들이 만든 태국음식 한 상

9

작년 6월 상담소 활동가들은,  
 청풍호가 보이는 근사한 숙소에서 1박 2일을 보냈습니다.  
 숙소를 떠나며 '하루 정도 더 머물고 싶다'고 이야기 했었는데요.  
 그 아쉬운 마음이 이어져 올해는 작년과 같은 장소로,  
 2박 3일간 워크숍을 다녀왔습니다. (확실히 2박 3일은 충분했습니다)  
 작년 감탄을 자아냈던 숙소, 청풍호가 보이는 마당의 풍경,  
 밤에 불을 피우며 이야기 나누던 시간이 모두 좋았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새로운 곳보다 익숙한 곳에서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고 싶다는  
 활동가들의 마음이 반영된 것은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 휴식과 놀이

이것은 저의 추측만은 아닙니다. 워크숍 참여자 평가 설문지를 보면, ‘휴식, 잠, 식사’에 대한 기대 정도와 충족도가 모두 높았습니다. 다른 항목을 보면, ‘여행, 놀이’도 기대 정도보다 훨씬 높게 충족된 한편, ‘교류, 친해지기, 대화’는 가장 높았던 기대만큼 충족되지는 않았습니다. 활동가들은 2박 3일간 여러 방식으로 쉬고 놀았는데요. 숙소에서는 마당의 커다란 나무 아래에 앉아 경치를 즐긴다거나, 게임을 한다거나, 안락의자에 앉아 눈을 감고 있다거나, 해먹에 누워 있거나, 침대에서 잠을 자거나, 책을 읽거나, 피아노를 쳤습니다. 밤엔 바비큐장에서 술을 마시거나 장작불 앞에 앉아 멍때리거나 (‘멍때리다’를 영어로 ‘Space Out’이라고 한다는군요) 넓은 거실에서 스트레칭과 요가를 하기도 했어요. 숙소에서만이 아니라 제천의 의림지에 가서는 산책하거나, 농구게임을 하거나, 오리배를 타거나, 사방치기를 하며 옛 실력을 발휘하기도 했어요. 미처 적지 못한 것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 상담소 활동가들은 쉴 땀 말이 없고 놀 땀 몸으로 노는 타입이 아닐지, 그래서 대화가 없었던 것은 아닌지 가설을 제기해봅니다.



● 마당에 누워 휴식 중



● 이그나이트에서 한 활동가가 좋아하는 강아지 '도순'을 소개 중

### 이그나이트

숙소에 도착해서 첫 번째로 했던 프로그램은 자유주제로 하는 ‘이그나이트’였습니다. 이그나이트는 스무 개의 피피티 슬라이드를 각 15초 자동넘김으로 설정해두고 여러 명이 돌아가며 하는 발표를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 한 명당 5분 동안 발표를 하는 것이지요. 이그나이트의 미션은 “모든 이가 말하게 하다”라고 합니다. 발표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을 때 몇몇 활동가들은 투덜거리거나 도착해서 다급히 발표를 준비하기도 했는데요, 막상 이그나이트 발표가 진행되자 호기심 어린 눈으로 즐겁게 발표를 듣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서로의 몰랐던 부분을 알 수 있기 때문이기도 했고, 똑같은 발표 형식에 똑같은 시간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발표자의 개성이 반영된 발표가 만들어졌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 태국 요리의 날

이번 워크숍에서 먹었던 음식 중 단연 돋보였던 식사는 둘째 날 숙소에서 아점으로 먹었던 태국 요리입니다. 커리 정도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목련의 하얀 퐁양꿍, 돼지고기바질볶음, 태국식김치, 그린커리에 오매의 망고찰밥과 선민의 요거트가 더해져 메뉴가 여섯 가지나 되는 호화로운 식사였습니다. 하얀 퐁양꿍은 심심하게 매워서 해장국을 연상시켰고요, 코코넛 향이 나는 그린커리는 밥과 살짝 섞어서 계속 먹고 싶은 맛이었습니다. 망고찰밥은 파란색 꽃물에 밥을 지어 연유를 넣고 망고와 함께 먹는 디저트인데, 밥과 망고의 단맛이 좋았습니다. 김치가 필요하거나 음식이 매워서 잘 먹지 못하는 활동가들이 있기도 했습니다. 이 글을 쓰는 저는 그 날의 그린커리를 잊지 못하고 한 번 더 해줄 수 없는지 요청하는 중입니다. 상담소 활동가들은 서로의 식사를 챙기고, 취향과 선택을 존중하면서 각자가 잘하는 요리를 나눠 먹습니다. 전에 제주 강정마을에 갔을 때 '평화'라는 말이 '밥을 고르게 나눠 먹는 것'이라고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고루 나눠 먹도록 준비하고 배려해주는 활동가들에게 늘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 문학과 영화의 밤

또 하나 소개하고 싶은 활동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날과 두 번째 날 밤에 진행되었던 프로그램 '문학의 밤'과 '무비나이트'입니다. 파이는 각 활동가들에게 어울리는 시를 골라 시집으로 미리 준비해왔는데요, 실로 선물 받은 사람과 잘 어울리는 시였습니다. 활동가들이 무엇을 느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감동과 위로가 있었길 바랍니다. 두 번째 날 밤에 거실에 모여 보았던 영화 <와일드>와 <뎀뽀걸즈>도 재미있었습니다.

산, 나무, 호수, 맑은 하늘과 공기 속에서 쉼과 놀이가 있는 2박 3일이었습니다. 바쁘게 달리고 있는 활동가들이 잠시 멈추고 숨을 고르는 시간이 아니었나 합니다. 이제, 내년 워크숍을 기다리며 일해야겠죠!



● 각자의 멋과 개성을 엿볼 수 있는 상근활동가들



# 훈훈한 기부 ♥

## 정이 넘치는 명절 선물 보내주신

조인섭 님, 박근하 님, 이동원 님, 이경환 님 고맙습니다.

## ♥ 소소한 일상의 반가움과 감사함을 담아,

### { 상담소 }

- 최란 님의 비타민가득 과일바구니, 카라향 한 상자, 수박, 수건, 소금
- 심민지 님의 폭신하고 포근한 롤케익
- 유네 전 활동가 어머님의 정갈하고 고급진 강화도 강정 한 상자
- 이미경 님의 풍년 초코파이 한 상자, 고구마 두 상자, 감자 한 상자, 토마토 한 상자
- 이명숙 님의 신선한 토마토 두 상자, 달콤한 딸기잼 한 통
- 김성자 님의 바다 내음 가득한 통영굴 한 상자
- 유승진 님의 고소하고 달콤한 빵 세 봉지
- 노희섭 님의 따뜻한 스콘
- 장광미 님의 미세먼지 타파 배도라지즙 두 상자
- 마츠모토 님의 포장부터 맛있는 일본에서 온 과자와 초콜릿
- 김신아 님의 구수한 커피원두 100g
- 이비현 님의 당 충전 딸기바나나 롤케익과 커피원두
- 정유석 님의 밍도독 강원도 찐지 두 통
- 만두 님의 비타민 듬뿍 비타500 두 상자
- 조은희 님의 이탈리아산 초콜렛&캔디&커피 한 상자씩과 피노키오 볼펜 세트
- 임경진 님의 원기회복 무농약 포도즙 한 상자
- 가운 님의 커피와 파운드케익
- 나량 님의 제주도 오메기 떡 한 상자
- 사자 님의 탐스런 한라봉 한 상자
- 김유림 님의 향이 좋은 풀바셋 커피 두 상자
- 김다인 님의 대만에서 온 밀크티
- 권경아 님의 쿠키 한 상자와 커피 한 상자
- 노주희 님의 체력충전 사과즙 한 상자
- <한국여성상담센터> 박도담 님의 인기만점 스폰지케익과 커피원두
- <수유너머> 권용선 님의 맛있는 파운드케익 한 상자
- <KBS9뉴스팀>의 힘이 나는 음료수 한 상자와 초콜릿
- <뉴스타파팀>의 비타민 듬뿍 비타500 한 상자
- <MBC PD수첩 기자단>의 간편 다과 단골메뉴 호도과자와 음료수 한 상자<sup>^</sup>
- <서울시향>의 당 충전 프렌치 구운과자 두 상자
- <마인드프리즘>의 고소고소 쿠키와 폭신한 카스테라 두 상자
- <연세대 간호학과>의 무화과 가득, 생크림 듬뿍 빵 한 봉지



### { 열림터 }

- 최영애 님 일용할 간식거리 빵 한 상자
- 이경희 님 이리저리 골라보는 즐거움을 준 중고의류 및 잡화 세 상자
- 비아 님 요긴하게 입을 수 있는 중고의류 한 상자
- 더비 님 추위도 잊게 만든 겨울 딸기 두 상자
- 임선영 님 피곤을 잊게 만드는 달콤한 마카롱 한 상자
- <암스테르담> 건강하게 만든 빵 두 바구니
- <마포구보건소> 생리대 다섯 상자
- <한국기독교선교 100주년기념교회> 부활절기념 떡 한 상자
- <마포사회복지협의회> 건강한 생활을 돕는 비타민 두 상자와 수제비누 한 상자